세계화 · 국제화의 의미와 과제

이 근 철
명지전산전문학교장

머리말

文民政府가 출범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다. 문민정부의 국정지표를 변화와 개혁에 두고 앞으로의 개혁목표를 세계화로 확대하겠다는 金泳三대통령의 호주시드니선언은 시기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은 金泳三대통령의 시드니선언에서 처음으로 나온 新造語는 아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서 國際化, 先進化, 西歐化, 未來化, 地球村化 및 開放化 등이 혼용되어 온 것이다.

특히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냉전도구의 종식에 이어 우르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세계적인 대세변화의 양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낱말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세계화, 국제화의 개념과 아울러 우리들의 課題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世界化의 意味와 特性

1982년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John Naisbitt는 그의 저서인 Megatrends 2000에서 1980년대의 大勢變化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② 강압적 기술로부터 고도기술 · 고도접촉으로
③ 국가경제에서 세계경제로
④ 단기계획에서 장기계획으로
⑤ 집권화에서 분권화로
⑥ 대의적 민주주의에서 참여적 민주주의로
⑦ 피라미드형 위계질서에서 네트워크형으로
⑧ 북에서 남으로
⑨ 제도적 원조에서 自助로
⑩ 양자택일 다양한 선택으로

이상과 같은 전환은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든 현재 이러한 전환들이 사태의 전반적인 양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뿐이며 새로운 체계의 힘들이 대두하고 있다.

또한 John Naisbitt는 Megatrends 2000이라는 1990년대 초에 발표한 저서에서 앞으로 10년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탈냉전시대의 미래상으로 예언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① 1990년대의 세계경제 활성
② 예술의 부흥
③ 복지국가의 私事化
④ 자유시장 사회주의의 출현
⑤ 세계적 생활양상 및 문화적 민족
⑥ 태평양시대의 출현
⑦ 여성지도력의 전성시대
⑧ 생물학적 시대
⑨ 신황금시대의 종교부활

⑩ 개인주의의 승리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적 상황의 특성은 상호간의 국경을 없애는 世界化이지만 동시에 인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의 생존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세계화의 목표는 국제 경쟁력 강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國際化의 意味와 特性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란 한마디로 국가적 중심의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본·상품·인력·기술·정보·문화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로이 교류·왕래·교환되는 이른바 국경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은 세계 각국의 사회와 시장의 문을 활짝 여는 開放化를 통하여 세계를 하나의 사회와 하나의 시장으로 이끌어가는 소위 地球村時代를 유도하고 있다.

국제화라고 하는 낱말에는 우리나라가 對外로 진출하는 對外進出과 우리나라를 對外에 개방하는 對外開放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대외 진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는 개방된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뛰어들어 세계 각국과 경쟁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이익금을 인류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 개방도 마찬가지다. 먼저 우리나라를 완전 개방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쟁무대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나라를 개방한 후에도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 개방의 이익을 인류 공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국제화특징은 경제적인 면에서만은 국경이 소멸되고 기술혁신도 하루가 멀다하고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외에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기업 對 기업, 개인 對 개인의 경쟁이 될 것이다. 결국 국제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世界化·國際化의 概念定立과 特徵

John Naisbitt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혁명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미래의 정보화사회는 개인, 조직, 사회, 국가 등 행동주체가 고립되거나 폐쇄된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多次元에 걸친 개인간, 지역간, 국가간의 교류는 개방화에 의한 세계화의 구체적 산물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세계에서 국민국가의 개념이 점차 약화되고, 국경없는 자본의 이동과 정치, 문화의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 것을 전제로 할 때 世界化는 무제한·무경계 경쟁과 더불어 경쟁협력공존의 시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중요성 저하와 함께 앞으로 각 행동주체간의 교류는 國際化와 世界化로 갈 것이 명백하다. 특히 UR협상 이후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는 세계화·국제화의 두 용어는 共通과 相違點을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도 21세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한 바 있다. 즉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각종제도와 법규 및 관습을 고치고 개혁차원에서의 개방, 규제철폐, 기술혁신 등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국제화라는 말을 쓰도록 하고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기 위해 합리적 사고방식, 국제적 감각 등을 익히는 활동이나 교육을 지칭할 때는 세계화라는 말을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용어의 개념정립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국제화는 국제간의 교류를 그리고 세계화

는 지구촌에 대한 의미상관성을 갖는다.

국제화의 경우 각종 경쟁에 중점을 두어 모든 행위주체간 특히 각국간의 무한경쟁 소용돌이에서의 국제경쟁력 우위라는 과제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국제화는 경제, 제도, 문화, 의식에 있어서 개별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뛰어넘는 국가간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자국중심의 폐쇄적인 사고로부터 영토국가의 국경을 초월하여 다국간의 활동과 의식이 전개되며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변동에 적응하여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수주의적 사고, 배타적 관행, 낙후된 전통사상을 국제수준에 맞게 고쳐나갈 것을 요구한다.

한편 국제화가 경쟁지향적인데 반하여 세계화는 국경을 넘어 호혜협력이 증진되며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세계화는 국제화의 규모가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 단일 공동체의 개념이 확산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국제화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이해된다.

둘째, 국제화는 현실주의적 국가간 기본관계를 세계화하는 이상주의적 인류공영의 공동체를 추구한다.

국제화는 국가중심적 경쟁관계를 함축하고 있으나 세계화는 인류의 공존논리가 강조된다.

따라서 국제화는 많은 민족과 국가가 공존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나, 세계화는 지구운영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둔다.

두 개념은 외견상 대립하는 것 같으나 결국 인류의 共同善을 위하여 함께 이바지하는 노력에 의해 그 개념이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는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수반하되 지역하위체계를 형성하는 지리적 인접국가들간의 상관성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공동체를 들 수 있다. 유럽의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이 지연되는 이유는 세계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의 집념이 강해지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국제정치무대의 再表出을 통하여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사회가 지니게 될 미래의 世界化에 대비하여 정치적 지역화와 경제적 세계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4. 맺음말

세계화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도전이다. 탈냉전시대의 정보화사회를 맞아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도세력으로 발돋움하려면 세계화를 지향한 巨步를 내디뎌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단계 높은 세계화라는 차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으로 先進化·開放化·國際化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金泳三대통령은 지난해 세계화는 우리가 저 넓은 세계로 진출하고 경쟁함으로써 세계 중심국가의 하나로 발돋움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존하는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화에서 밝은 미래를 찾아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석학인 폴 케네디는 21세기의 어려운 여건과 불확실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 안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높은 저축과 투자율, 교육제도의 우수성, 제조업을 선호하는 특수성에 힘입어 21세기의 격랑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21세기를 지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世界化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 정부에서는 세계화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